



EBS ‘하나뿐인 지구 -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대응일지

EBS에서는 지난 1월 17일(금) 오후 8시 50분에 “하나뿐인 지구-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를 방영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방영된 프로그램은 우유에 대한 부정적, 편향적인 내용으로 제작되어 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오해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방송을 전후하여 강경대응을 전개하고, EBS의 재방송계획을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협회의 대응활동을 일정별로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1월 15일(수), EBS ‘하나뿐인 지구 -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방송자제 요청

방송예고편에 우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어 협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우유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고편 및 본방송의 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EBS측에 요청하였다. 이에 EBS는 이후 예고편을 취소하고 사내 심의를 통해 본방송의 내용을 조정할 계획임을 알려왔으며, 협회에서는 방송에 대한 우려와 협회의견 미반영시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임을 재차 통보하였다.

1월 17일(금)20시 50분, EBS ‘하나뿐인 지구 -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방송 강행

협회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주제로 방송이 강행되었다. 이

방송내용

- 주관적인 나레이션과 자극적인 멘트
 - 우유가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 현대인에게 우유는 완벽한 식품이 될 수 없다.
 - 우유 대체 마셔야 하나?
 - 우유 알레르기가 심할 경우 죽을 수 있다.
- 자극적인 내용을 위한 잘못된 자료 활용
 - 우유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포르말린 뉴스자료' 활용
 - 유전자 조작 낙농 사례자, 일부 우유 알레르기 환자
- 부정적 인식의 편향적인 전문가 섭외
 - 우유는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완전식품이 아니라 불완전한 식품
 - 우유가 암을 일으킨다
 - 우유는 뼈건강, 골당골증과 관계없음
- 사육환경에 대한 잘못된 비교
 - 미국 공장식 축산의 열악한 환경을 주요 자료화면으로 활용
 - 밀집사육, 병든 젖소(질탈), 기립불능 젖소
 - 사람에게 의해 어미소와 격리되는 송아지

에 협회에서는 오염중 고문번호사와 법적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집회신고 등 강경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1월 20일(월), EBS에 집회신고

협회는 EBS본사 및 제작본부에 집회신고를 완료하고 방송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키로 하였다.

1월 21일(화), 법원 방송중지가처분신청 및 EBS 사장 면담요청

협회는 서울지방법원에 방송중지가처분신청(①재방송중단, ②홈페이지 영상공급 중단, ③각종 웹사이트 영상물 및 이미지컷 삭제)을 접수하고, EBS 사장면담을 요청하였다. 또한 EBS 대응관련 보도자료를 전문지, 국회, 정부에 배포하였다.



1월 22일(수), EBS 대응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협회, 농협중앙회, 우유자조금사무국, 유가공협회, 낙농진흥회 등 관련단체 전문가와 오염중 고문변호사가 참석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 대한영양사협회, 전문의,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1월 23일(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1호 법정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방송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협회측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오염중 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우신)는 변론에서 본 프로그램은 주관적인 나레이션과 자극적인 멘트, 자극적인 내용과 잘못된 자료접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편향적인 전문가 섭외, 사육환경에 대한 잘못된 비교로 국민 필수식품인 우유가 마치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시청자에게 심어주었다고 지적하고, 본 프로그램으로 인해 전국 6천여명의 낙농가들은 큰 충격에 빠져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오변호사는 방송법상 방송의 공영성과 중립성을 위반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헌법상의 중대한 흠결이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재판부에 강하게 호소하였다.

재판부으로부터 발언기회를 얻은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우유가 마치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편향적 내용이 보도되어 전국 낙농가들은 범법자가 된 듯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밝히고, 선량한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다.

1월 23일(목) 오후 2시 30분, EBS본사 항의방문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박건호 회장,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신관우 회장, 낙농진흥회 이근성 회장이 EBS본사를 항의방문하였다.

낙농관련 단체장들은 EBS가 국내 낙농산업을 말살시키겠다는 의도 하에 계획적으로 방송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력 항의하였다. 낙농업계와 유가공업계 종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며 재방송 및 영상공급행위 즉각 중단,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즉각 실시,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을 EBS측에 강하게 요구하였다.



EBS 방송제작본부장은 방송전 자체심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방송 중지 가처분신청 판결결과에 따라 재방송 및 영상공급행위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해 낙농관련 단체장들로부터 큰 원성을 들었다. 낙농관련단체장들은 EBS가 낙농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1월 23일(목) 오후 5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방송중지 가처분신청 재판에 대한 판결문이 협회에 송달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방송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증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금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1월 23일(목) 오후 9시 30분, EBS 재방송 취소 통지

오후 9시 30분, EBS측은 최종적으로 1.24일 재방송 중단을 결정했다고 협회로 알려왔으며, 홈페이지 및 인터넷 웹사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웹사이트 조치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고 EBS측에 전했다. ☺